

번역의 검증기제로서의 성분분석 연구

윤 희 주
(관동대)

1. 서론

Dagut(1978)가 언급한 바 있는 원천언어(SL: Source Language)와 목표언어(TL: Target Language)의 문화적인 차이(cultural voids) 및 어휘적 차이(lexical voids)가 큰 어휘를 번역할 때 적절한 등가어를 모색하는 것은 실제 번역현장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 많은 번역가들은 대부분 단순한 언어학적 직관력에 의하여 목표언어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SL과 TL을 비교하는 사례분석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번역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SL과 TL의 문화적, 어휘적 차이로 인하여 등가어를 찾기 어렵다거나 유사어가 많은 경우, 번역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은 번역의 평가 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번역가의 언어학적 직관에 의하여 실행된 번역결과를 의미론적으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제로서 성분분석(componential analysis)을 제시하고, 이를 활

용한 번역의 검증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성분분석은 원래 어휘에 대한 의미론적 자질을 분석하고 기술하는 언어학적 도구이나 Nida(1964)와 Newmark(1988)가 문화번역의 전략으로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분분석을 번역의 전략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건대 성분분석을 번역전략보다는 검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크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성분분석을 통하여 SL과 TL이 내포하고 있는 공유자질과 변별자질을 한 눈에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의 타당성과 의미론적 오류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번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등가의 효과(equivalent effect)를 극대화시키는데 있다고 보았다. 기존의 번역방법들은 번역가의 머릿속에서 이루어 지므로 성분분석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이 번역학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다면 적어도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등가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따라서 먼저 언어학과 번역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분분석의 정의와 유형들을 살펴보고, 성분분석을 활용한 의미론적 검증방안과 절차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학에서 사용된 성분분석의 정의 및 유형

본 연구에서 성분분석은 등가를 검증하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성분분석은 주로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나 번역학에서도 의미론적 번역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성분분석의 정확한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언어학에서 통용되는 성분분석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래 성분분석은 주로 음운론에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성분분석이란(Trauth & Kazzazi 1996:88-89) 의미론적 자질의 세트를 통하여 어휘 목록(lexicon)의 내부 구조를 한눈에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어휘소들(lexemes)의 의미를 기술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성분분석은 의미론에서 한 언어에 대한 목록을 보편적이고 확

실한 자질들로 분석하여 제한적인 목록으로 만듦으로써 그러한 어휘 목록에 대한 의미 기술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색채어, 친족관계 용어, 치수, 군사계급, 동사 등이 성분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의미자질을 발견하는 과정이 그다지 객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론적 단위를 가장 작은 의미요소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미론적 관계에 대한 분석자의 직관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의미론적 분석에 대한 분석자의 경험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셋째, 의미론적 자질들의 이론적인 위상을 결정하는 것이 임의적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언어학에서 성분분석은 한 단어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의미 요소들로 최대한 자세하게 나누어 분석하는데, 분류 기준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효용적 가치가 올라가므로 비교 데이터가 얼마나 세분화 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bachelor’는 [+human, -female, +adult, -married] 등과 같이 그 의미의 자질을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bachelor’라는 어휘가 지닌 의미구조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성분분석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성분분석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번역학에서 사용되는 성분분석의 개념과 목적은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성분분석은 한 언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반면, 번역학에서는 양 언어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Newmark(1988b:114)에 의하면, 번역학에서 정의된 성분분석이라 함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SL과 TL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일대일 대응의 등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SL과 TL 각각의 의미자질들이 갖는 공통점을 분석한 후 차별화 된 의미요소를 찾아냄으로써 궁극적으로 SL의 의미자질과 가장 유사한 TL을 선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Nida(1964:82)도 이러한 성분분석을 성서번역에서 활용한 바 있다. 즉, 원전의 메시지를 담은 SL이 지닌 지시적 의미는 성분분석의 과정을 겪는데, 이때 단어의 의미는 ‘공유된 대조적인 자질’들에 근거하여 분류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SL과 TL의 언어적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들의 의미요소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등가어를 모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언어의 의미 요소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써 SL과 최대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등가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성분분석의 최대 장점인 것이다. 단, 성분분석 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분분석은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화용론적인 의미나 지시적인 의미는 중립적으로 변하게 되어 SL 문화의 특수성은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의미론적 자질을 분류함에 있어서 임의적일 수 있으므로 분석과정의 객관적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분석과정에 따르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분분석을 번역 전략이라기보다는 번역된 사례를 검증하는 도구라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ewmark(1988b:117)에 의하면, 성분분석의 목적은 경제성을 희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가능한 한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성분분석은 풀어쓰기(paraphrase)나 정의)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제한적인 기술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번역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성분분석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다(Newmark 1988b:114-117). 즉, '수량도표(scalar diagram)', '균등도표(equation diagram)', '행렬도표(matrix diagram)', '병렬계도 도표(parallel tree diagram)'이다. 이들을 간단히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량도표'는 어휘군이 지니는 의미의 차이를 규모별로 한 눈에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영어의 유사어들과 이에 대응되는 독일어, 프랑스어의 유사어들이 갖는 규모의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영어의 hamlet<village<town<city와 같은 어휘의 규모를 독일어와 프랑스의 어휘의 규모와 비교할 수 있다. 둘째, '균등도표'는 SL의 의미를 +자질과 -자질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Ton*= sound (+human, -vibration, -loud, -long), *Laut*= sound (+human, -vibration, -loud, -long), *Schall*= sound (-human, +vibration, +loud, +loud), *Klang*= sound (-human, +vibration, +loud, +long)의 네 단어 모두 '소리'를 나타내지만 위와 같이 의미자질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법은 맥락 내에서 제한된 의미론적 대상을 정한 후 의미론적 단위를 분석하는 방법이므로 분석자의 언어적 직관력과 주관성이 개입된다는 점에서 '행렬도표'와 유사하다.

1) 여기서 참고로 정의와 성분분석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정의라는 것은 한 단어에 대한 분석인 반면, 성분분석은 다른 단어와 어울렸을 때 그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을 말한다.

그러나 ‘행렬도표’에 비하여 의미자질이 덜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행렬도표’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사전적 어휘, 유사어, 어휘 세트, 개념적 용어, 신조어, 통념적 단어와 같은 보다 다양한 어휘를 그 분석대상으로 한다. 이 방법은 SL의 어휘세트를 보여줌으로써 TL과 가장 유사한 의미론적 등가어를 확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변별적 의미와 공통된 의미를 비교적 자세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으므로 SL과 대응되는 유사어들이 많을 경우 SL과 TL의 의미차이를 최대한 좁히고 가장 근접한 등가어를 선택하는데 정확성을 높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병렬제도 도표’는 SL과 TL의 의미관계를 한 세트씩 계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휘간의 차이를 한 눈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가지 방법 모두 유사어들 간의 의미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본 연구에서 활용될 ‘행렬도표’는 특히, 문화적인 특성이 강한 유사어들의 의미를 비교적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번역의 검증기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2.2. 성분분석을 활용한 번역분석 및 연구방안

‘성분분석’을 번역 분석 및 검증기제로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는 의미론적으로 번역의 타당성을 증명하고 의미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앞서 밝힌 바 있다. 실제 성분분석을 활용한 번역분석에 들어가지 이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성분분석의 대상이 되는 TL 단어들의 선택은 원천언어 텍스트(ST: Source Language Text)의 맥락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한 어휘들은 대부분 문화적인 단어들(cultural words)이거나 등가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사어가 많은 경우이다. 이러한 어휘를 대상으로 영한사전을 참고하여 TL에 대응 될 수 있는 유사어들을 찾거나, TL 문화권에서 문화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는 단어들을 선택하여 이들을 비교분석 할 수 있다. 단,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언어의 다의성에 따라 그 범위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맥락 안에서만이 어휘의 의미가 가장 축소될 수 있으므로 성분분석의 대상은 ST의 맥락 안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성분분석의 대상이 되는 단어들을 결정하는 것은 ST에서 그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과, 텍스트의 특정한 유형 및 고객이나 독자층에 요구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Newmark가 이러한 점을 밝힌 이유는 성분분석 과정자체가 정확성은 높일 수 있는 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단어를 선택할 때에는 위와 같이 비중이 있는 단어들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근거한다기보다는 문화적인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어휘나 유사어가 많은 어휘에 사례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들은 번역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유사어를 성분분석 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SL의 유사어들이 지니는 차이점을 먼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의미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문화적 단어나 개념어, 신조어들은 성분분석을 하되, 텍스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텍스트의 처음에 반드시 각주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번역가는 성분분석을 통하여 의미론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결과물을 TL로 제시하겠지만 만약 TL독자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위와 같이 각주나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네 가지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성분분석 시 각각의 의미론적 자질을 설정하는 것은 ST의 맥락과 실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번역가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는 자칫 객관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긴 하나 영한사전 혹은 경우에 따라 한국어 사전을 활용하여 의미론적인 기준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설정한다면 의미 분석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번역의 불가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보았다. 즉, 문화적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차용어를 포함), ST의 맥락에 따라 가장 근접한 등가어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유사어가 많은 경우이다. 따라서 그에 대응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TL 어휘들을 선택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성분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문화적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나 유사어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SL을 선택하여 프라임 영한사전을 참고하여 동의어들을 찾았다. 선택

된 어휘는 모두 유사한 카테고리에 존재하는 항목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fiesta’에 대한 TL 유사어는 ‘축제’, ‘잔치’, ‘명절’, ‘모임’으로 정할 수 있다.

둘째, SL 문화와 TL 문화에서 해당어휘가 가지는 공통된 자질 또는 변별적 의미자질들을 가려내어 성분분석의 분류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어휘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기능들부터 찾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세한 분류가 이루어질수록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분류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위의 네 가지 유사어들에 대하여 ‘집단의 단위(가족, 사회, 국가)’, ‘종교적 성격(유, 무)’, ‘집단의 크기(대, 소)’와 같은 비교적 자세한 분류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은 ST의 맥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셋째, 각 자질에 부합하는 경우는 +로, 맞지 않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위의 네 가지 유사어들 중, ‘종교적 성격’을 갖지 않는 어휘는 ‘잔치’이므로 -로 표시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교적 성격’을 가지므로 +로 표시할 수 있다.

넷째, ST의 맥락에 따른 SL의 의미자질을 위와 같이 분석한다. 그 이유는 맥락이 성분분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L ‘fiesta’는 사전적으로 종교상의 축제나 휴일, 성일을 일컫는다. 그러나 맥락상 이러한 종교적인 특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을 고려하여 ‘집단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가족’이나 ‘사회’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SL과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TL 항목들 즉, ‘축제’, ‘잔치’, ‘명절’, ‘모임’의 자질들을 비교하였을 때 SL인 ‘fiesta’와 가장 유사한 자질을 갖는 TL 항목을 맥락상 ‘모임’으로 정할 수 있다.

3. 성분분석 사례연구

성분분석에 들어가기 전, ST의 맥락 안에서 성분분석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어휘들은 대부분 유사어나 문화적인 특성이 강한 어휘들이 많다. 주의할 점은 성분분석은 의미론적으로 양 언어의 차이를 최대한 좁힘으로써 신뢰성, 타당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SL의 문화적 특성은 독립적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성분분석의 대상은 Newmark가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에서 크게 비중 있는 어휘를 선택하였다기보다는 번역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나, 등가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유사어가 많은 경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분분석의 네 가지 유형 중 행렬도표를 활용하여 SL과 TL의 유사어들이 지닌 공통된 의미자질들과 변별적 의미자질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TL의 타당성을 증명해보도록 하겠다.

(1) SL: We tried to get his wheelchair into my college student's econo-box but to no avail. (Canfield 1999:192)

TL: 내 차는 대학생신분에 딱 맞는 실속형 소형차라서 우리는 휠체어를 차에 넣으려고 애썼지만 허사였다. (이순영 외 2002:36)

‘econo-box’의 개념은 TL 문화에 존재하나 일대일로 대응하는 단어를 찾기는 어렵다. TL 문화에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TL 항목들을 추출하여 공통된 의미자질과 변별적 의미자질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항목이 등가어임을 증명할 수 있다. 먼저, ST의 맥락을 고려하면, ‘econo-box’란 본격적으로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 신분에 적합한 차로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차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기량은 1100cc정도이며, 가스나 휘발유를 사용하며, ‘two-door’로 된 차가 많다. 따라서 ‘econo-box’의 의미자질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즉, ‘배기량’은 ‘500-1000 cc급’으로 보았으며, ‘주 사용연료’는 ‘가스’와 ‘휘발유’로, ‘계층별 선호도’는 맥락상 그 대상이 대학생이므로 경제성을 고려한 차라는 점에서 주로 ‘서민층’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어 종류’에서는 자동기어가 수동기어보다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는 것이 사실이나 보편적으로 ‘자동’과 ‘수동’ 모두 이용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자질 모두 +로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econo-box’의 번역대안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번역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경차’이다. 한때, 사각모양의 작은 티코가 한국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차로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 그 이후, 티코와 같은 차는 차체가 약하여 사고 시 위험부담이 크다는 점을 좀더 보완하여 티코보다는 좀더 가격이 비

싼 아토즈나 비스토 같은 경차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차’를 첫째 대안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대안으로 ‘소형차’를 제시하였다. 수동기어를 가진 소형차도 비교적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안으로는 ‘승합차’를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차의 사이즈 면에서 앞서 설정한 두 항목들과 대조적으로 크긴 하나 경유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연료 값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설정된 각 항목이 갖는 공통된 특성들 즉, 경제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인들을 ‘배기량’, ‘주 사용연료’, ‘계층별 선호도’, ‘기어종류’로 자세하게 분류해 보았다. 첫째, ‘배기량’은 ‘500-1000cc’, ‘1500cc급’, ‘2000cc 이상’으로 나누었는데 이들은 곧 차의 크기를 말해줌으로써 경제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 사용연료’는 ‘가스’, ‘경유’, ‘휘발유’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상호비교 하였다. 이들은 연료비를 암시하므로 역시 경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계층별 선호도’는 ‘서민층’, ‘중산층’, ‘중상위층’으로 나누어 이들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이유는 여기서 제시된 차들 모두 경제성을 고려한 차들이므로 계층별로 그 선호도가 다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보편성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 둔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기어의 종류’를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수동기어는 자동기어보다 기름을 덜 소모하므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econo-box’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econo-box

	배기량			주 사용연료			계층별 선호도			기어종류	
	500-1000 cc급	1500 cc급	2000 cc이상	가스	경유	휘발유	서민층	중산층	중상위층	자동	수동
econo-box	+	-	-	+	-	+	+	-	-	(+)	+
소형차	-	+	-	-	-	+	-	+	-	(+)	+
경차	+	-	-	+	-	+	+	-	-	(+)	+
승합차	-	-	+	-	+	-	+	-	-	-	+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위의 표에서 ‘배기량의 차이’와 ‘주 사용연료’의 분석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특히 배기량 500-1000 CC급에서, 주 사용연료 ‘가스’에서 다른 두 경우와 비교하여 경차가 가장 차별화 됨으로써 경제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형차’와 ‘경차’의 구분은 ‘배기량’과 ‘계층별 선호도’ 분석에서 크게 차별화 되었다. 즉, ‘소형차’는 배기량이 1500 CC로, ‘경차’는 500-1000 CC로 차별화되었고, ‘계층별 선호도’에서는 ‘소형차’는 ‘중산층’이, ‘경차’는 ‘서민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경차’와 ‘승합차’는 ‘배기량’과 ‘주 사용연료’의 분석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경차’는 배기량이 500-1000 CC인데 반해, ‘승합차’는 2000 CC였고, ‘경차’는 주 사용연료가 ‘휘발유’인데 비해 ‘승합차’는 ‘경유’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econo-box’는 배기량이 1100cc정도이며, 대학생과 같이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며, 가스나 휘발유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자질들과 가장 유사한 항목은 ‘소형차’, ‘경차’, ‘승합차’ 중 ‘경차’가 가장 근접한 등가를 이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실속형 소형차’라고 기술하여 번역하는 것보다 ‘경차’가 오히려 문화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등가어임을 증명할 수 있다.

(2) SL: One more traffic light to go and *fiesta*. (Canfield 1999:192)

TL: 교통신호등을 한 번 더 지나야 파티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순영 외 2002:36)

‘fiesta’는 스페인어로서 스페인, 라틴아메리카의 종교상의 축제나 휴일, 혹은 성일을 일컫는 말이다. 위문장의 앞뒤 맥락상으로는 정확한 지시어를 알기가 어렵다. 단, ST에서 그다지 비중을 차지하는 어휘는 아니나 문화적 특성이 강한 어휘이므로 성분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ST의 맥락상 방과후에 들르는 곳이므로 국가적인 행사라기보다는 가족이나 사회집단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사로 보았다. 따라서 집단의 크기 면에서 그 규모가 작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ST의 맥락을 고려하여, ‘fiesta’는 ‘집단의 단위’에서 ‘가족’이나 ‘사회’

의 규모에 따른 행사로 보았다. 특히 이러한 자질은 ST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SL 자체의 특성만을 고려한다면 ‘사회’나 ‘국가’와 같은 보다 큰 집단의 단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종교적 특성의 유, 무 각각에 +로 표시하였다. 또한 SL 자체의 특성상으로는 성일(聖日)이라는 개념도 포함하지만, ST의 맥락상으로는 종교적인 특성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집단의 크기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았다. 예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ST에서 우연히 어려움에 빠진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친구의 집까지 방문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국가적인 중요한 모임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을 제시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다음으로, ‘fiesta’는 TL에 대응되는 등가어를 찾기 어려우므로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안 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TL에서의 유사어들 즉, ‘축제’, ‘모임’²⁾, ‘잔치’, ‘명절’을 선택하였는데, 이들 모두 TL문화에서 통용되는 개념이긴 하나 ‘축제’는 나머지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SL 문화권의 정서에 보다 적합한 표현이고, ‘잔치’나 ‘명절’은 TL 문화의 정서에 더 적합하다. 이들 중 ‘모임’은 중립적인 단어로 볼 수 있다. 맥락상 ‘fiesta’는 스페인어로, ST에서 이미 차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aker(1992: 21-26)는 TL에서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차용어를 항상 발견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명제적 의미만이 전달 될 뿐 문체적인 효과는 사라져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단, 차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텍스트에서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 주므로 그 단어가 지니는 명성적 가치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fiesta’와 유사한 의미의 차용어로 ‘파티’라는 단어가 있긴 하나 분석 텍스트에서는 맥락상 ‘fiesta’가 주는 명성적 가치나 세련된 분위기를 부각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모임’이라는 어휘로 대신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공통된 기준이 되는 항목을 ‘집단의 단위’, ‘종교적 성격’, ‘집단의 크기’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집단의 단위’는 ‘가족’, ‘사회’, ‘국가’로 세분화하였고, 둘째, ‘종교적 성격’에서는 종교적 성격의 ‘유’, ‘무’로 분류하였고, 셋째, ‘집단의 크기’에서는 ‘대’, ‘소’로 나누었다.

2) TT에서 사용된 ‘파티’는 차용어이므로 TL문화에서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임’이라는 단어로 대신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fiesta

	집단의 단위			종교적 성격		집단의 크기	
	가족	사회	국가	유	무	대	소
<i>fiesta</i>	+	+	-	+	+	-	+
축제	-	+	-	+	+	+	-
모임	+	+	-	+	+	-	+
잔치	+	-	-	-	+	-	+
명절	-	-	+	+	+	+	-

위의 【표 2】 를 살펴보면, 첫째, ‘집단의 단위’의 항목에서 ‘가족’, ‘사회’, ‘국가’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모임’은 그 외의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국가’를 제외한 ‘가족’과 ‘사회’에서 모두 +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적 성격’의 항목에서 각 요인이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의 유무를 살펴 본 결과, ‘잔치’는 그 외의 다른 항목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집단의 크기’의 항목에서는 모임의 크고 작은 규모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임’과 ‘잔치’는 나머지 두 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모임의 규모가 작은 반면, ‘축제’와 ‘명절’은 나머지 두 요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므로 서로 차별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임’은 ‘집단의 단위’에서 나머지 모든 요인에 비해 가족과 사회 모두 +자질을 가지므로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났으며, ‘종교적 성격’에서는 ‘잔치’와 차이를 두며, ‘집단의 크기’에서 ‘축제’, ‘명절’과의 차이를 둔다.

본래 ‘fiesta’는 종교적인 축제라는 국가적이고 종교적이며 집단의 규모가 큰 특성을 갖고 있지만 ST의 맥락상에서는 주인공인 대학생이 방과후에 들르는 곳으로 보아 국가보다는 가족, 사회같은 비교적 그 규모가 작은 집단의 모임으로 보았다. 따라서 위의 분석을 통하여 ‘축제’, ‘모임’, ‘잔치’, ‘명절’이라는 대안 항목들 중 *fiesta*와 가장 유사한 자질을 갖는 항목을 ‘모임’으로 보았다. 분석 텍스트에서는 ‘파티장소’로 번역되었으나 ‘파티’라는 차용어를 그대로 쓰기 보다는 ‘모임’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이다.

- (3) SL: **Fraternity** men who go once a year to the retirement home near their chapter to dance with the older ladies the day before

Valentine's Day. (Canfield 1999:188)

TL: 발렌타인데이 전날, 할머니들과 춤을 추어 드리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남학생회 집 근처에 있는 양로원을 찾아가는 남학생회의 진짜 남자들. (이순영 외 2002:26)

‘fraternity’ 역시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적절한 기능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일단 ST의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해 볼 수 있다. 먼저, ‘fraternity’는 남성이라는 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반대되는 성 즉, 여학생들의 클럽으로 ‘sorority’라는 어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적인 집단이 아닌 학교라는 단체 속에서 사회성을 지닌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보다는 ‘사교 지향적’ 자질을 갖는다. SL인 ‘fraternity’가 갖는 의미자질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이러한 SL의 의미자질을 바탕으로 ‘fraternity’에 대한 TL의 대안으로 유사어들을 영한사전을 참조하여 ‘남학생회’, ‘동우회’, ‘친목회’, ‘스터디 그룹’이라는 5가지 항목으로 정하였다.

다음으로, 이들의 공통된 특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집단 성별 특성’, ‘집단형태’, ‘소속집단’, ‘집단성격’이다. 여기서 다시 ‘집단 성별 특성’은 ‘남성’, ‘여성’으로, ‘집단형태’는 ‘공식’, ‘비공식’으로, ‘소속집단’은 ‘학교집단’, ‘사회집단’으로, ‘집단성격’은 ‘사교지향’, ‘학습지향’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3】 fraternity

	집단 성별 특성		집단 형태		소속 집단		집단 성격	
	남성	여성	공식	비공식	학교 집단	사회 집단	사교 지향	학습 지향
fraternity	+	-	+	-	+	-	+	-
남학생회	+	-	+	-	+	-	+	-
동우회	-	-	+	-	-	+	+	-
친목회	-	-	-	+	-	+	+	-
스터디그룹	-	-	-	+	+	-	-	+

위의 【표 3】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성별 특성’ 항목에서 ‘남

학생회'는 남성중심의 집단임을 나타내는 어휘라는 점에서 다른 항목과 구별된다. 둘째, '집단 형태' 항목에서는 각 항목을 '공식', '비공식'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남학생회'와 '동우회'가 '공식'으로 '친목회' 및 '스터디 그룹'이 '비공식'으로 차별화되었다. 셋째, '소속집단'을 '학교집단'과 '사회집단'으로 구분한 결과, '남학생 회의', '스터디 그룹'이 나머지 요소들과의 차이를 드러내었으며, '집단 성격'을 '사교'와 '학습'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스터디 그룹'이 나머지 요소들과 구분되었다.

결과적으로, 'fraternity'는 '남성', '공식적', '학교집단', '학습지향'보다는 '사교 지향'이라는 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위의 네 가지 대안들 중 'fraternity'의 자질과 가장 유사한 항목은 '남학생회'로 나타났다. '남학생회'는 다른 대안항목들과는 달리 '남성'이라는 성별특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며 학교집단으로 구성되며 사교 지향적 자질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fraternity'에 대하여 의미론적으로 가장 유사한 단어는 '남학생회'임을 알 수 있다.

(4) SL: At the hall council meeting the night after the fire, my residents decided to have a wing competition. (Canfield 1999:197)

TL: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 저녁 기숙사생 회의에서, 기숙사 동별로 한 팀을 이루어 가장 많은 기증품을 거둔 팀이 승리하는 동별 대항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순영 외 2002:45)

영한사전을 참고하면 'resident'에 대한 TL 대응어들이 몇 가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제시된 유사한 어휘들은 이 문맥에서처럼 대학 내에서 주로 사용될 법한 특수한 의미를 가진 어휘가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맥락상 TL로 제시된 것이 '기숙사생'이므로 이러한 등가어의 의미자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주자', '주민', '숙박자', '기숙사생'이라는 유사어들을 찾아 '기간', '목적', '주거형태'의 항목으로 나누어 4개의 어휘들을 성분분석 하였다.

먼저, 'resident'에 대한 의미자질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 단어는 상주가 아닌 잠시 머물러 있는 '체류'의 특성을 갖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체류 시에는 특정한 목적성을 지니게 마련인데 ST의 맥락상 기숙사내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므로 '학업'이라는 자질을 가지며, '학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긴 하

나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생활’자질을 갖는다. 학업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거형태는 ‘개인별’자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자질을 요약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위의 4개의 요소가 지닌 공통된 특성을 바탕으로 제시한 ‘기간’은 ‘상주’, ‘체류’로, ‘목적’은 다시 ‘학업’, ‘생활’, ‘관광’으로, ‘주거형태’는 ‘개인별’, ‘가족별’로 세분화하였다.

【표 4】 resident

	기간		목적			주거형태	
	상주	체류	학업	생활	관광	개인별	가족 단위별
resident	-	+	+	+	-	+	-
거주자	+	-	-	+	-	-	+
주 민	+	-	-	+	-	-	+
숙박자	-	+	-	-	+	+	-
기숙사생	-	+	+	+	-	+	-

위의 【표 4】에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의 항목에서 ‘상주’자와 일시 ‘체류’자로 구분하여 각각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거주자’와 ‘주민’은 ‘체류’에서 -자질을 가지나 ‘숙박자’와 ‘기숙사생’은 +자질을 지니므로써 서로 차별화된다. 둘째, ‘목적’의 항목에서 ‘학업’, ‘생활’, ‘관광’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기숙사생’이 ‘거주자’, ‘주민’, ‘숙박자’에 비하여 ‘학업’과 ‘생활’항목에서 모두 +자질을 가짐으로써 다른 항목들과 차별화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주거형태’로 ‘개인별’과 ‘가족단위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결과, ‘거주자’, ‘주민’과 ‘숙박자’ 요인과 ‘기숙사생’ 요인이 차별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T의 맥락에 따라 ‘resident’는 체류 자질을, ‘목적’에서 ‘학업’, ‘생활’자질을, ‘주거 형태’에서 ‘개인별’자질을 가짐으로써 네 가지 대안 중 ‘기숙사생’과 가장 의미론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5) SL: while not glamorous, it was I could do. (Canfield 1999:184)

TL: 씩 맘에 드는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순영 외 2002:18)

여기서 ‘glamorous’를 성분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SL과 TL에서의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TL 문화에서는 섹시한 여성에 대하여 ‘육감적인’ 혹은 ‘관능적인’이라는 의미로 ‘글래머러스하다’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이 말을 ‘글래머러스하다’로 음차 번역하면, TL 독자들은 TL 권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의미를 연상하게 되므로 ST의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번역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맥락상 어떠한 일에 대하여 ‘씩 맘에 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SL과 TL의 의미차이를 고려하여야 번역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glamorous’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대상이 사물인지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가 종종 이러한 표현을 음차번역 함으로써 SL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분분석 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먼저, SL인 ‘glamorous’는 영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성적’, ‘지적’, ‘태도’, ‘직업’, ‘사물’을 일컫는 표현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영한사전에서 ‘매력적인’, ‘맘에 드는’, ‘관능적인’, ‘육감적인’, ‘매우 귀여운’과 같은 유사어들을 발견하였다.

【표 5】 glamorous

	표현의 유무				
	성적	지적	태도	직업(일)	사물
glamorous	+	+	+	+	+
매력적인	+	+	+	+	-
맘에 드는	+	+	+	+	+
관능적인	+	-	+	-	-
육감적인	+	-	+	-	-
매우 귀여운	-	-	+	-	+

중요한 점은 문맥에서 ‘glamorous’는 먼저 사람을 표현할 때의 관능적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어떠한 사물 또는 직업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ST의 맥락에 따르면, 화자가 지칭하는 일은 대학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아

르바이트를 말한다. 이때 설거지는 전통적인 관습상 여성의 일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현재는 구분이 없음) 여성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어의 분석도 ‘glamorous’가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미들 즉, 영화사전에 나타난 ‘매력적인’, ‘맘에 드는’, ‘관능적인’, ‘육감적인’, ‘매우 귀여운’이라는 5가지의 요인을 선택하였고, 이를 다시 ‘표현의 유무’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즉, 각각의 요인들이 ‘성적’, ‘지적’, ‘태도’, ‘직업(일)’, ‘사물’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한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표현의 유무’ 항목에서 ‘매력적인’, ‘맘에 드는’ 요소와 나머지 ‘관능적인’, ‘육감적인’, ‘매우 귀여운’의 세 요소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세부항목의 마지막 요소인 ‘사물’의 분석에서 ‘매력적인’과 ‘맘에 드는’의 분석결과가 큰 차이를 드러낼 수 있었다. 이는 결과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ST의 맥락에 따라 표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설거지’라는 일이므로 ‘glamorous’의 등가어는 ‘맘에 드는’이 된다. 만약 사람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었다면 좀더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이다.

4. 결 론

여기까지 등가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성분분석을 적용시켜보았다. 이와 같이 성분분석의 적용은 그 연구범위가 매우 넓으며, 의미자질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비교 분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론적인 차이를 좁힐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반면,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성분분석에 있어서 각각의 의미론적 자질 즉, 변별자질과 공유자질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신뢰성 있는 전문 번역가의 언어적 직관력 및 경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의미의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여 번역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화용론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성분분석을 등가어를 찾기 어려운 경우 번역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기제로 제시하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번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번역방법은 단지 번역가의 직관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하지 못할 때가 많다. 반면, 성분분석을 활용하면 SL과 TL의 공통 자질들과 변별 자질들을 도표를 통하여 한 눈에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의미론적으로 등가의 효과를 확보하는데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성분분석 시 중요한 점은 반드시 ST의 맥락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휘의 다의성에 의하여 비교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므로 ST의 맥락에 의거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뢰성 있는 전문번역가의 언어학적 직관력은 ‘전문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론적으로 성분분석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성분분석을 번역의 검증 기제로 제시한 이유는, 이러한 시도가 밑거름이 되어 등가의 문체가 발생하는 번역에 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성분분석이 번역의 정확성, 객관성 및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이순영 외 옮김. 2002. 『용기를 주는 101가지 이야기』.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Canfield. J. et al. 1999. *Chicken Soup for the College Soul: Inspiring and Humorous Stories about College*. Florida: Health Communications).
- Baker, M.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Dagut, M. 1978. *Hebrew-English Translation: A Linguistic Analysis of Some Semantic Problems*. Haifa: University of Haifa.
- Newmark, P. 1988(a). *Approach to Translation*. Oxford & New York: Pergamon.
- Newmark, P. 1988(b). *A Textbook of Translation*. New York: Poenix.
- Nida, 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E.J. Brill.

Nida, E. & Taber, C. 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Shuttleworth, M. 1997.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Trauth, H & Kazzazi, K. (eds). 1996. *Routledge Dictionary of Language and Linguistics.* London & New York: Routledge.

K C I

[Abstract]

**A Study on Componential Analysis
as a Tool for Evaluating Translated Results**

Yun, Hee ju
(Kwand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se componential analy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translations. But to this day there has been no effective method for evaluating translated results. So an effective strategy is required as a tool to examine the target language.

'Componential Analysis (CA)' is used to semantically analyze contrasting and shared features of the source and the target languages. Component analysis is a useful tool for translating cultural words as suggested by Newmark and Nida, and it is also helpful in evaluating translated results. Here the focus is on the latter, because most translation are done solely relying on the translator's linguistic intuition. As such, they are often not very systematic or accurate. CA, however, is a much more systematic method, because it helps to grasp the entirety of the source and target language features at a glance.

More importantly, CA is us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translation as well as evaluate translated results. Further studies on CA are needed to enhance the appropriateness, accuracy and objectivity of translating.

►Key Words: componential analysis, validity of translation, equivalent, systematic method, target language, source language